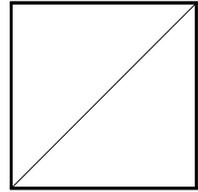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416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20. 12. 22. (제 22 차) |

의
결
사
항

한국산업은행
2021년도 업무계획(안)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위원장 은 성 수 |
| 제출 연월일 | 2020. 12. 22. |

1. 의결주문

- 한국산업은행(이하 '산업은행')이 승인 요청한 「2021년도 업무계획(안)」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신청 등)에 따라 산업은행이 요청한 「2021년도 업무계획(안)」을 승인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<총 자금공급 계획 : 총 68.0조원 >

- '20년 계획(66조원)대비 2.0조원(3.0%) 증액하여 총 68.0조원 공급 계획

- (대출 공급) 61.9조원 공급('20년 59.9조원 → '21년 61.9조원, +2.0조원)

* 시설자금 18.0조원(+0.2), 운영자금 36.4조원(+1.8), 온렌딩 7.5조원(-)

- (투자 공급) 5.5조원 공급('20년과 동일한 수준)

* 사채인수 3.0조원, 주식인수 2.5조원 등

※ 추경예산 출자 등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시책에 따라 '20.12월말까지 총 89조원(당초 업무계획 66조원 대비 +23조원) 공급 예정

※ '21년 코로나대응 특별 공급목표 74.8조원 :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 상황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하여 특별 목표 설정·신축적 운영

<총 자금조달 계획 : 총 68.0조원 >

- '21년중 산금채(원화) 발행(55.0조원), 외화 차입(8.2조원), 예수금 등(0.6조원), 투·융자금 회수(61.4조원), 재정·기금 차입(0.6조원) 등

* 산금채 등 상환금 △59.0조원 감안시 총 68.0조원 조달

<중점 추진 사항>

① 중소기업, 혁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

-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('20년 45.0조원 → '21년 46.0조원)
- 혁신성장부문 지원규모 확대('20년 17.0조원 → '21년 20.0조원)

② 시설·운영자금 등 대출공급 확대 : '20년 59.9조원 → '21년 61.9조원

- (시설자금) 수요증가 전망 등 감안 : '20년 17.8조원 → '21년 18.0조원
- (운영자금) 시설투자에 따른 추가 운영자금 수요 등 감안
: '20년 34.6조원 → '21년 36.4조원
- (온렌딩) 전년과 동일한 규모 공급 : '20년 7.5조원 → '21년 7.5조원

③ 전년도 수준 회사채·주식인수 지원 : '20년 5.5조원 → '21년 5.5조원

- (회사채 인수) 기업 직접금융 자금조달, 시장안정, 회사채 양극화 해소
: '20년 3.0조원 → '21년 3.0조원
- (주식인수) 모험자본 공급, 신시장 창출 : '20년 2.5조원 → '21년 2.5조원

④ 재정·기금자금 전년도 수준 공급 : '20년 0.6조원 → '21년 0.6조원

<업무계획의 변경>

- 업무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20% 범위 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승인 없이 변경토록 하고, 2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승인 후 변경

4. 참고사항

- 가. 한국산업은행 2021년도 업무계획(안) : <붙임 1>
- 나. 관계법규 : <붙임 2>
- 다. 관계부서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(별 지)

의 결 주 문

한국산업은행의 「2021년도 업무계획 승인 신청」(’20. 11.)에 대해 신청 내용대로 승인한다.

2021년도 업무계획(안)

(자금의 공급과 조달에 관한 계획)

2020. 12.

한 국 산 업 은 행

- 목 차 -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2021년 경제 및 금융환경 전망 | 1 |
| II . 업무계획 | 4 |
| 1. 업무계획 기본방향 | 4 |
| 2. 업무계획 총칙 | 5 |
| 3. 업무계획 운용방향 | 6 |
| 4. 업무계획 규모 | 7 |
| 5. 부문별 자금공급 계획 | 8 |
| 6. 부문별 자금조달 계획 | 11 |
| < 별첨 > 1. 업무계획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 | 13 |
| 2. 2020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(예상) | 19 |
| 3. 관계법규 | 20 |

I 2021년 경제 및 금융환경 전망

1. 국내외 경제전망

□ 세계경제

- '21년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 기조로 반등세를 나타낼 전망이다,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이전까지 불확실성 지속

* IMF는 '20년 세계 성장률 예상치를 '20.6월 $\Delta 5.2\%$ → '20.10월 $\Delta 4.4\%$ 로 상향

세계 및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

(단위 : %)

| 구분 | 세계 | 선진국 | 주요국 | | | 신홍국 | 중국 | 인도 | 러시아 | 브라질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미국 | 유로존 | 일본 | | | | | |
| 2019 | 2.8 | 1.7 | 2.2 | 1.3 | 0.7 | 3.7 | 6.1 | 4.2 | 1.3 | 1.1 |
| 2020(E) | $\Delta 4.4$ | $\Delta 5.8$ | $\Delta 4.3$ | $\Delta 8.3$ | $\Delta 5.3$ | $\Delta 3.3$ | 1.9 | $\Delta 10.3$ | $\Delta 4.1$ | $\Delta 5.8$ |
| 2021(E) | 5.2 | 3.9 | 3.1 | 5.2 | 2.3 | 6.0 | 8.2 | 8.8 | 2.8 | 2.8 |

자료 :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20.10)

□ 국내경제

- '21년은 경제활동 증가, 정부의 경기부양 본격화 등에 힘입어 개선세로 돌아설 전망

* '21년 예산(안)에 따르면, 정부 지출은 555.8조원(전년대비 8.5% 증가)

2021년 국내경제 전망

(단위 : %, 억달러)

| 구분 | 2019 | 2020 | | | 2021(E)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상반기 | 하반기(E) | 연간(E) | |
| 국내총생산 | 2.0 | $\Delta 0.7$ | $\Delta 1.3$ | $\Delta 1.0$ | 3.0 |
| 민간소비 | 1.7 | $\Delta 4.4$ | $\Delta 4.2$ | $\Delta 4.3$ | 3.6 |
| 설비투자 | $\Delta 7.5$ | 5.6 | 6.4 | 6.0 | 4.9 |
| 건설투자 | $\Delta 2.5$ | 1.7 | $\Delta 1.3$ | 0.2 | 1.1 |
| 경상수지 | 600 | 192 | 413 | 605 | 612 |
| 수출 | $\Delta 10.4$ | $\Delta 11.3$ | $\Delta 5.2$ | $\Delta 8.2$ | 9.4 |
| 수입 | $\Delta 6.0$ | $\Delta 9.1$ | $\Delta 8.2$ | $\Delta 8.7$ | 9.2 |
| 소비자물가 | 0.4 | 0.6 | 0.6 | 0.6 | 1.0 |
| 실업률 | 3.8 | 4.3 | 3.5 | 3.9 | 3.8 |

주) 수출과 수입은 통관기준, 경상수지는 금액
 자료 : 당행 미래전략개발부 전망

2. 금융환경 전망

□ 국내산업

- (설비투자)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부진했던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는 '21년중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

* 정부는 '20~'22년간 디지털뉴딜에 18.6조원, 그린뉴딜에 19.6조원 투자 계획

- '21년중 설비투자규모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으로 '19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

설비투자 BSI 추이



주 : 전망은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
자료 : 한국은행

경제활동별 설비투자 추이



주 : 기타는 건설업, 전기·가스·수도업, 농림어업, 광업 등
자료 : 한국은행

□ 기업금융시장

- '20년중 기업대출 증감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큰폭 증가 하여 '19년(44.9조원)의 2.2배 수준인 99.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

-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에 기인

- '21년중 기업대출 증감액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축소,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'20년(99.1조원) 대비 감소한 62.2조원을 기록할 전망

-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, 뉴딜정책 지원에 따른 자금공급 확대 등으로 과거 3개년('17~'19) 평균(41.4조원) 대비 확대된 수준

기업대출 잔액 및 증감액·증감률 추이 및 전망 (단위 : 조원, %)

| 구분 |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(E) | '21년(E)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기업대출 | 잔액 | 781.4 | 824.1 | 869.0 | 968.1 | 1,030.3 |
| | 증감액 | 36.6 | 42.7 | 44.9 | 99.1 | 62.2 |
| | 증감률(%) | (4.9) | (5.5) | (5.4) | (11.4) | (6.4) |
| 대기업 대출잔액 | | 149.6 | 154.7 | 152.3 | 172.2 | 174.0 |
| 중소기업 대출잔액 | | 631.8 | 669.4 | 716.7 | 795.9 | 856.3 |

주 : '20년과 '21년은 당행 미래전략개발부 전망
 자료 : 한국은행

□ 금리 전망

-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0.5%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유력
 - 가계대출 증가,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 괴리 심화 등으로 금융안정 필요성 부각
 -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가운데,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'21년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□ 외환시장전망

- '21년 원/달러 환율은 연평균 1,120원으로 '20년 평균(20.10월말 기준) 1,182원 대비 하락할 전망
 - * '20년 환율변동 : 연중 최고가 1,285.7원(3.19일), 연중 최저가 1,125.5원(10.27일)
 -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강세,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환율 하락압력이 다소 우세할 전망
 -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, 내국인 해외투자 등이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

II 업무계획

1. 업무계획 기본방향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급 목표 |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 핵심 선도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선도형 경제기반 마련 |
| 업무 계획 기본 방향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견인 ②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 역동성 제고 ③ 균형 및 조화로운 사회기반 구축 지원 ④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 |
| 경제 금융 환경 | 세계 경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세계 경제성장률 5%대로 제한적 반등 예상 (IMF) - '18년 3.6% → '19년 2.8% → '20년(E) △4.4% → '21년(E) 5.2% - (제약요인)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 가능성, 정책적 지원여력 축소 등 |
| | 국내 경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판 뉴딜 등 경기부양책 확대에 경제성장률 개선 - GDP성장률 : '20년(E) △1.0% → '21년(E) 3.0% ○ 한국판 뉴딜 분야, 반도체 중심 IT부문 투자 확대 전망 ○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, 소비활성화 대책 재개 등으로 소비심리 개선 |
| | 산업 전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도체, 석유화학, 조선 등 산업 전반적으로 소폭 회복 예상 ○ 한국판 뉴딜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, 디스플레이, 에너지 등 산업구조 변화 예상 - (자동차) 내연차→전기차, (디스플레이) LCD→차세대디스플레이 (에너지) 전통에너지→친환경에너지, 그린뉴딜 |
| | 은행 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정책자금, 뉴딜 지원 등으로 대출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세 ○ NIM하락세, 핀테크 등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 |

2. 업무계획 총칙

가. 다음 기본방향에 따라 2021년도 업무계획이 집행되도록 노력한다.

- 1) 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견인
- 2)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 역동성 제고
- 3) 균형 및 조화로운 사회기반 구축 지원
- 4)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나. 향후 경제동향과 자금조달·공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항의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계획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

- 1) 업무계획 총액 20% 범위내의 변경은 업무계획 범위내로 보아 별도 승인 없이 변경
- 2) 업무계획 총액 20%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

다. 정부 출자금의 변경, 기금 등 정부시책에 의한 자금조달 또는 공급계획의 조정, 환율변동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업무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 없이 집행한다.

3. 업무계획 운용방향

- 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견인
 - 중소·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
 - 핵심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
 - 경기회복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 역동성 제고
 -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 강화
 - 미래 유망 신산업·혁신기업 발굴·육성 지원
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

- 균형 및 조화로운 사회기반 구축 지원
 - 사회·환경 책임금융 지속수행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지원
 -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 - 대·중소·지자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

-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 - 재무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 조달기반 확보
 - 구조조정기업 관리 효율성 제고
 - 미래지향적 정책금융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

4. 업무계획 규모

□ 총규모 : 68조원

- 경제활력 회복, 한국판 뉴딜 및 미래 핵심 선도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해 '20년 계획대비 2조원(3.0%) 증가한 68조원 공급

업무계획 규모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(E) | |
| 공 급 액 ^{주1)} | 645,000 | 729,242 | 660,000 | 890,000 | 680,000 |
| 증 가 율 | 1.6 | 13.2 | 2.3 | 22.0 | 3.0 |
| 중소·중견 ^{주1)} | 440,000 | 477,482 | 450,000 | 545,000 | 460,000 |
| 증 가 율 | 2.3 | 4.6 | 2.3 | 14.1 | 2.2 |
| 혁신성장 ^{주2)} | 145,000 | 158,964 | 170,000 | 193,000 | 200,000 |
| 증 가 율 | 20.8 | 29.6 | 17.2 | 21.4 | 17.6 |

주1. 온렌딩 포함

2.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품목 300개

□ 자금공급 및 조달 계획

(단위 : 억원)

| 자 금 의 공 급 | | | 자 금 의 조 달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|
| 대 출 | 619,000 | 자 본 금 | 11,208 | |
| 시 설 | 180,000 | 원화산금채 | 550,000 | |
| 운 영 | 364,000 | 외화차입 | 82,145 | |
| 온 렌 디ング | 75,000 | (U\$백만) | (7,000) | |
| 투 자 | 55,000 | 예수금 등 | 6,370 | |
| 사채인수 | 30,000 | 투·융자금회수 | 614,489 | |
| 주식인수 | 25,000 | 제 상환금 | △590,212 | |
| 재정·기금 | 6,000 | 재정·기금 | 6,000 | |
| 합 계 | 680,000 | 합 계 | 680,000 | |

5. 부문별 자금공급 계획

가. 대출 : 61조 9,000억원

1) 시설자금 : 18조원

- 한국판 뉴딜 및 미래 핵심 선도산업 육성 등 지원 확대
 - '21년 설비투자수요 소폭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하여 '20년 계획 대비 0.2조원(1.1%) 증가한 18조원 수준의 시설자금 지원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(E) | |
| 공 급 액 | 169,000 | 199,096 | 178,000 | 224,000 | 180,000 |
| 증 가 율 | 1.5% | 34.4% | 5.3% | 12.5% | 1.1% |

2) 운영자금 : 36조 4,000억원

- 경제활력 회복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 지원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'20년 계획 대비 1.8조원(5.2%) 증가한 36.4조원 공급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(E) | |
| 공 급 액 | 338,500 | 376,243 | 346,000 | 473,000 | 364,000 |
| 증 가 율 | 3.8% | 5.6% | 2.2% | 25.7% | 5.2% |

3) 온렌딩 : 7조 5,000억원

- 한국판 뉴딜, 혁신성장 지원 등 특별온렌딩 확대 등을 통해 정책적 금융지원 강화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(E) | |
| 공급액 | 75,000 | 75,948 | 75,000 | 75,000 | 75,000 |
| 증가율 | 7.1% | △8.5% | 0.0% | △1.2% | 0.0% |

나. 투자 : 5조 5,000억원

1) 사채인수 : 3조원

-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, 금융시장 안정 및 회사채 시장 양극화 해소 등 지원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(E) | |
| 공 급 액 | 30,000 | 33,597 | 30,000 | 56,000* | 30,000 |
| 증 가 율 | △14.3% | △14.7% | 0.0% | 66.7% | 0.0% |

* '20.10월말 기준, 코로나19 관련 P-CBO 발행 증가(계열대기업 포함) 및 매력도 하락으로 인해 시장내 소화가 곤란한 여전채의 정책적 인수 확대 등으로 당행 인수규모가 전년대비 2.3조원 증가

2) 주식인수 : 2조 5,000억원

- 뉴딜펀드 참여, 혁신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모험 자본 공급 및 신시장 창출 지속 지원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* | 계획 | 실적(E)** | |
| 공 급 액 | 25,000 | 38,535 | 25,000 | 55,000 | 25,000 |
| 증 가 율 | 0.0% | 5.7% | 0.0% | 42.7% | 0.0% |

* KDB인베스트먼트(0.9조원), 한국해양진흥공사(0.5조원) 등 거액 비경상투자 2.4조원 포함
 ** 기업유동성지원기구(1조원), 한진칼(0.8조원), 채안·증안펀드(0.8조원) 등 거액 비경상투자 3.2조원 포함

다. 재정·기금 : 6,000억원

- 관광진흥개발기금, 에너지합리화기금 등 기금 지원

| 구 분 | 2019년 | | 2020년 |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(E) | |
| 공 급 액 | 6,000 | 5,146 | 6,000 | 7,000* | 6,000 |
| 증 가 율 | △14.3% | △18.8% | 0.0% | 36.0% | 0.0% |

* 코로나19 사태로 기금운용이 확대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공급실적 0.1조원 증가

6. 부문별 자금조달 계획

1) 자본금 : 1조 1,208억원

- 한국판 뉴딜,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안정화 등을 위한 자본금 증자

2) 원화산금채 : 55조원

- 산금채 상환액, 투·융자 공급 및 회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'20년 실적대비 5.1조원 감소한 55조원 발행

| 구 분 | 2019년 | 2020년(E)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발 행 액 | 466,023 | 601,365 | 550,000 |
| 상 환 액 | 489,243 | 484,482 | 529,178 |
| 잔 액 | 948,813 | 1,065,696 | 1,086,518 |

3) 외화차입 : 8조 2,145억원 (US\$7,000백만)

- 외화차입금 상환 규모, 투·융자금 공급 및 회수 규모, 그리고 적정 외화조달 규모를 감안하여 US\$7,000백만 조달

| 외화차입금 상환(A) | 투·융자금 공급(B) | 투·융자금 회수(C) | 외화차입 예상(A+B-C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5,201 | 7,179 | 5,380 | 7,000 |

| 구 분 | 2019년 | 2020년(E) | 2021년 계획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외화차입 | 5,451 | 7,604 | 7,000 |
| 상 환 액 | 5,046 | 5,859 | 5,201 |
| 잔 액 | 24,279 | 26,024 | 27,823 |

4) 예수금 등 : 6,370억원

- 개인 및 법인 예수금 평잔 전년대비 증가 : 3,000억원
- 외화단기조달 등 : 3,370억원

5) 투·융자금 회수 : 61조 4,489억원

- 대출금 회수 : 57조 8,771억원
 - 기한연장 및 기한전상환 등 감안

| 대출금 회수 예상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(단위 : 억원) |
| 기일도래액(A) | 기한전상환(B) | 기한연장(C) | 회수예상(A+B-C) |
| 564,267 | 75,285 | 60,781 | 578,771 |

- 투자금 회수 : 3조 5,718억원
 - 채권 만기회수 등 : 2조 5,739억원
 - 보유주식 매각 등 : 9,979억원

6) 제 상환금 : △59조 212억원

- 원화산금채 등 상환 : 52조 9,178억원
- 외화차입금 상환 : 6조 1,034억원(U\$5,201백만)

7) 재정·기금 : 6,000억원

- ① 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견인
- ②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 역동성 제고
- ③ 균형 및 조화로운 사회기반 구축 지원
- ④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1. 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견인

□ 중소·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

- 성장형 중소기업 발굴·육성 및 유망 중견기업 지원 확대

- 「중소·중견 지원자금」 및 「KDB Global Challengers 200 전용자금」 등 활용

□ 핵심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

- 주력산업 스마트화, 고도화 등 제조혁신을 위한 금융지원

-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, 「스마트공장 지원자금」 등의 주력산업 분야 적극 활용

-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재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M&A, PEF 등 정책성 IB기능 강화

- 신산업 육성,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 연결해 산업분석 및 사업재편 수요 파악을 통한 컨설팅 수행 및 금융지원

□ 경기회복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 코로나19發 경영환경 악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부족 해소 지원 등 시장안전판 역할 지속 수행
 - 코로나19 피해기업 앞 운영자금 지원 및 회사채 조달시장 안정화 등

| 자금용도 | 지원분야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시적 부족 운영자금 지원 |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기업 |
| 회사채·CP 차환 지원 | 원활한 회사채 및 CP 등 차환 지원 |
|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| 항공, 해운, 조선,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분야 |

- 선제적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품 라인업 강화
 - 시설투자 계획중인 기업을 위한 시설투자 특화상품 마련
 -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, 「스마트공장 지원자금」, 「공장 부지분양대금 지원자금」 등 기존 상품 Line-up의 운용한도 확대

2.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 역동성 제고

□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 강화

- 뉴딜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
 - 뉴딜 산업·기업 공동기준 가이드라인(197개 품목+a) 설정
 - 산업·금융 사업협력 플랫폼 구축 등 비금융지원 강화
-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뉴딜 펀드 조성
 - 뉴딜분야 혁신기업,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위해 정책형 펀드,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 및 민간 뉴딜펀드 조성

- 디지털·그린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 - 「한국판 뉴딜 전용 지원 프로그램」 신설 및 「뉴딜 수신 신상품」 출시
- 스마트 물류산업 및 물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

□ 미래 유망 신산업·혁신기업 발굴·육성 지원

- 코로나19發 벤처투자 위축 등 혁신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
 - (KDB NextRound) 온·오프라인 병행, 디지털·그린뉴딜 등 정책지원 스페셜라운드 개최, 온라인 플랫폼 구축(21上 오픈) 등
 - (NextRise 2021, Seoul) 온·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아시아 대표 스타트업 Fair로 브랜드화
-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연계지원 강화
 - 정부 R&D자금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연계투자,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(CVC) 연계 공동 투자
-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·벤처기업 스케일업 금융지원
 - 대형 펀드(가칭 '유니콘 펀드') 조성을 통해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Series C 이상 집중 투자
 - * BBIG(Battery, Bio, Internet, Game) 등 한국판 뉴딜 및 Untact 관련 핵심분야 유망기업 지원
 - 스케일업 금융 지원체계 고도화

| 지원체계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Pre-Unicorn Library | 누적투자유치 300억원 이상, 신기보 선정 유망기업 등 스케일업 마케팅 대상기업에 대한 종합 Library 구축 |
| Mega-7 Club | 당행과 국내 상위 7개 VC와의 대형 공동투자 활성화 |
| 바이오 Open Innovation | 산학연 Alliance 결성 확대를 통해 당행 투자기회 확대 및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 제고 |

□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

- 핵심 소재·부품산업 영위기업의 생산시설 구축, 기술개발, M&A 등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반 구축 지원
 - 「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」, 「핵심기반산업 지원자금」 등 활용하여 시스템반도체,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
- 소재·부품·장비 전용 특별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적극 유도
 -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의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「소·부·장 전용 특별펀드」 조성(0.5조원) 및 민간투자 적극 유도
- 글로벌 공급망(GVC) 다변화 및 재편을 통해 정부의 新남방 정책 고도화에 적극 부응하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지원
 - 「KDB Global Challengers 200 전용자금」, 「국제여신 특별자금」, 「일자리창출 지원자금」 등 활용

3. 균형 및 조화로운 사회기반 구축 지원

□ 사회·환경 책임금융 지속수행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지원

-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 관련 금융지원 강화
-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

□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
- 지방소재 중소·중견기업 및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 - 「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」,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 등 활용
-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산업·신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
 - 「서비스산업 지원자금」, 「사회책임경영 기업 지원자금」 등 활용

□ 대·중소·지자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

- 지역밀착형 상생일자리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 운용 등을 통한 대·중·소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

4.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□ 재무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 조달기반 확보

- 수익기반 확대 및 자산건전성 제고로 흑자 달성 등 안정적 재무기반 구축
- 안정적 BIS비율을 유지하여 향후 구조조정 및 정책금융 지원에 따른 손실 흡수력 강화
 - 거액익스포저 축소노력을 통한 여신편중위험 관리
 - 투자자산 관리 강화 및 신속 매각을 통한 투자포트폴리오 관리
- 기업 자금수요 충족을 위한 적기 자금조달 및 低원가 재원 확보를 통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도모

□ 구조조정기업 관리 효율성 제고

-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및 주요 현안기업의 효율적인 정상화 추진
- 한계·부실기업에 대한 사전적·사후적 구조조정 강화
 - 산업경쟁력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감안한 주도적 구조조정 추진
 - 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업무 효율성 제고

□ 미래지향적 정책금융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

- 경제·산업환경, 정부정책 등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신규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영업정책 추진계획 수립
- 산업 생태계 전환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산업분류 기준 개선 및 이와 연계한 여신운용
- 디지털금융 대응능력 강화 및 정책금융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지속 추진

1. 자금공급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2020년도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| 계 획 | 실적(E) | 달성률(%) |
| 대 출 | 599,000 | 772,000 | 128.9 |
| 시 설 | 178,000 | 224,000 | 125.8 |
| 운 영 | 346,000 | 473,000 | 136.7 |
| 온 렌 디ング | 75,000 | 75,000 | 100.0 |
| 투 자 | 55,000 | 111,000 | 201.8 |
| 사채인수 | 30,000 | 56,000 | 186.7 |
| 주식인수 | 25,000 | 55,000 | 220.0 |
| 재정·기금 | 6,000 | 7,000 | 116.7 |
| 합 계 | 660,000 | 890,000 | 134.8 |

2. 자금조달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2020년도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계 획 | 실적(E) | 달성률(%) |
| 자 본 금 | 4,505 | 21,026 | 466.7 |
| 원화산금채 | 435,000 | 601,365 | 138.2 |
| 외화차입 (US\$억) | 66,071 (55) | 89,233 (76) | 135.1 (138.3) |
| 예수금 등 | 6,430 | 주) 121,803 | 1,894.3 |
| 투·융자금 회수 | 613,463 | 607,020 | 98.9 |
| 제 상환금 | △471,469 | △558,081 | 118.4 |
| 재정·기금 | 6,000 | 7,635 | 127.3 |
| 합 계 | 660,000 | 890,000 | 134.8 |

주) '20년중 예수금 증가, 외화 단기조달 증가 등에 기인

- '20년말 예수금 잔액(예상) : 41.2조원(전년말 대비 +8.0조원)
- '20년말 외화단기조달 잔액(예상) : 51.1억불(전년말 대비 +6.1억불)

□ 한국산업은행법

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)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.

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규

□ 한국산업은행법

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)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.

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| 금융위원회 |
| 소관부서 | 산업금융과 |
| 연 락 처 | 02-2100-2861 |